

# 만약 청문회가 열렸다면...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직 시절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어쨌든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무단에 잘 보였어야 했다. 광주로 들어오는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동림 나들목을 비롯해 빙글로·무진로·농성광장 등 실사단이 거쳐 갈 주요 길목에 꽃잔디를 심기 시작했다. 광주역 광장의 말뚝한 잔디도 파헤쳐지고 꽃잔디로 옷을 갈아입었다.

말들이 많았다. 3년 동안 1200만 본의 꽃잔디 등을 심는 데 7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꽃잔디 식재 사업은 예산 낭비와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나섰고 꽃잔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기술

센터 농촌지도사 한 명이 인건비 70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 (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어제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고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장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뤄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1호”가 고작 ‘올드보이’ 박 시장이나”며 그의 나이를 거론하기도 한다. 올해 우리나라 77세이니 한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이는 별로 염려할 게 못 된다는 생각이다. 굳이 ‘백세 시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 전 시내 한 골프 연습장에서 목격된 그의 모습은 정정하리 그지없었다고 하니 말이다. (실제로 그는 지인들과 자주 필드에 나갈 정도로 건강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많이 보도됐지만 다시 복기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참여자지21이 낸 설명이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박 대표의 측근과 참모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인데 보는 인사, 업무상 횡령죄, 자질과 도덕성 논란 등 인사 참상이 새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도 그대로 옮겨 가는 심히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소가 웃을 일’이라며 성명을 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기를 마친 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시점에 비리에 연루된 박 전 시장이 대표에 선임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문성 부족에 비리 전력까지

‘비리(非理) 전력’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결정적 하자(瑕疵)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란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을 통해 20억 원 가량을 현금화한 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당은 “박 전 시장이 재임 중인 2005~2009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뒤 ‘상품권깡’을 통

해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쨌든 이러한 반대 여론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다. “이 시장이 강권해서 떠맡은 자리인데 내가 왜 말년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최근 그가 주변에 했다는 말이다. 불편한 심정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언급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르들지 않고 있다. 일부 광주시의원들 역시 “박 전 시장은 비리 전력 외에도 자동차 산업의 이해 및 전문 경영 경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시장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광주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으며 노사 상생의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로 (박 전 시장)추천 사유를 밝혔지만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노사 상생과 사회 통합에 어울리는 인물로 교체해야만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리 삼고초려(三顧草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작 박 전 시장 본인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 수락한 것일까. 시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 그랬으면 좋겠다. 설마 대표로서 받게 될 연봉이 육십나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요즘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정도 부(富)를 누리는 그가 고까짓 보수(報酬)를 탐할 리야 있을라고?

‘말년의 수모’ 겪지 않으려면

물론 그도 한때는 참 어렵게 살았다. 민중과 운동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1972년 10월유신이 선포됐을 때 수배돼 쫓기는 몸이 되고, 이듬해 영광 친구 집에 피신해 있던 중 지금의 부인을 만나 약혼한다. 하지만 또다시 ‘유신 철폐’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다.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유신 반대 투쟁을 포기하면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으나 끝까지 않는다. 결국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면회 온 약혼녀의 말이 그를 울린다.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당신

을 기다리겠어요.” 그 후 2년간 광약(廣藥)은 옥바라지뿐만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까지 지성으로 모셨다. 34세 되던 해 출산 그는 비로소 그녀와 결혼한다. 고난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다.

부인은 결혼 20여 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그를 도왔다. 그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광주시장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부인의 그러한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그도 이제 팔손을 바라보며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 할 시점에 왔다. 만약 청문회가 있었다면 그는 과연 통과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가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자리를 수락한 목적이 ‘돈’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에 있다면? 게다가 그의 말마따나 ‘말년의 수모’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싶다면? 이제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쯤 해서 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신 ‘상임고문’ 같은 자리를 하나 맡아서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천명한다면, 시민들도 분명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같은데...

# 어등산개발 용적률 규제 피해 지하 5층까지 짓는다

서진건설, 지상 1층·지하 5층 ‘기형적’ 상가 건축 계획

상가면적 15% 확대에 중소상인 반발 우려...상생시설 건립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가시설 면적이 개발사업 우선협상자인 (주)서진건설 측이 첫 제안했던 것보다 1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상가시설 면적을 늘리는 대신 지역상생시설을 관광단지에서 조성하겠다는 서진건설 측 사업계획 변경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를 위해 애초 23일 체결하기로 한 사업협약 시기를 다음달 초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가 시설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건축물 높이 규제 장치의 하나인 용적률 규제(지정상 80%)를 사실상 피해가며 지상 1층, 지하 5층까지의 기형적인 시설로 건립기로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건설사 편법’을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진건설 측은 최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상가 면적을 기존의 7만5900㎡(2만3000평)에서 지하 1개 층을 늘려 1만1570㎡(3500여평)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초 지상 1층, 지하 4층이던 상가 건물을 지상은 그대로 두되 지하는 5층(4·5층은 주차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상가 규모 확대 등으로 투자금액도 기존 4800억 원에서 5643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공모 지침에 따라 상가 시설 부지 면적은 2만4170㎡ 이하로 제한되며, 지하 상가시설에는 의무 판매점 입점이 제한된다.

하지만 상가 면적이 애초보다 15% 늘어난 데 대해 소상공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서진건설 측이 사업대상지가 산지(산비탈)라는 특성을 이용해 지하 1층까지 햇볕이 드는 구조로 상가시설을 건립해 사실상 상가를 지상 2층 규모로 지어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금번에 추진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지침에서 ‘유원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가시설에 한해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적용 가능함’이라고 적시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용적률이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일종의 장치로 지하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진건설 측은 상가면적을 키우는 대신 지역상생 시설을 이번엔 조성할 관광단지 내에 별도로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광주시에 밝혔다. 로컬푸드마켓, 예술품·공예품 판매장, 청년 창업공간 등 지역상생형 상업공간을 짓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유원지 부지 약 41만7000

㎡에 5643억 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열대식물원, 스포츠센터, 영화관, 파크골프장 등), 숙박시설(특급호텔 160실, 레지던스 314실), 대규모 이벤트 광장(페스타스퀘어)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은 다음달 초까지 광주도시공사와 사업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기간인 향후 5년 이내 관광단지 조성을 마무리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41만 7000㎡ 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 시설, 특급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어르신들이 만든 지팡이 ‘청려장’

복지부-남구시니어클럽 납품계약...12년째 정부·지자체 공급

광주시 어르신들의 손에 의해 생산되는 ‘청려장(靑藜杖)’이 12년째 정부와 전국 지자체 등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 ‘청려장’은 통일신라 때부터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지팡이다.

광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구시니어클럽이 납품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 대촌동에서 생산된 청려장 1550개를 전국 17개 사·도에 납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0세를 맞이한 전국의 노인들에게 공경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대통령 명의의 청려장을 제공하고 있다.

남구시니어클럽은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정부에 청려장 납품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청려장을 만드는 어르신 10명으로 구성된 ‘명아주 지팡이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000여개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단의 명아주 생산을 돕기 위해 대촌동

일원 농지 2800여 평을 명아주 재배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청려장은 명아주과의 한해살이 풀로 만들어진 지팡이로, 보조강목 등 의서에 ‘청려장을 짓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고, 민간에서도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질이 단단하고 가벼워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어르신들의 선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한편, 광주시는 총 사업비 610억4000만 원(국비50%·시비50%)을 투입해 남구시니어클럽 명아주지팡이 사업단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48개 수행기관·284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2만1453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교량사회정책과장은 “청려장 제작은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어르신 일자리로 적합하다”면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청려장처럼 앞으로는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투자

### 7억원, 2명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부안곰소 토지매매

###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출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출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치고 대지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 휴양림 부근 31976㎡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5억5천
- 무안 용탄면 영산강점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면(담) 8232㎡ 주유소경종을 9억4800
- 남구 덕남동(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관리 5억5천
- 시설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유환경 좋음 8억
- 유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상가 건물**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뎀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건평 269㎡ 펜션·민박 등 적합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칠불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지평동 대영건물 중 1층 264㎡ 공실임대 은행 8천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곡성군 옥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일지 등 4240㎡ 강진산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남원시 지리산 뱀사골점 펜션 땅 2399㎡ 시설 완벽 투자까지 양호 16억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일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